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⑤

<지난호에 이어>
기어 구동식 선반 제작

나는 피대선반에만 만족하지 않고 좀더 편리한 성능 좋은 선반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의 대리점 주인이 '지금 외국에서는 기어구동식 선반이 개발했는데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며 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장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날부터 기어구동식 선반제작에 착수할 작정이었다.

공장장으로 있는 박신형과 기계에 관한 한 손재주가 뛰어난 범희봉을 사무실로 불렀다. 공장장은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겨우 피대선반 정도를 만드는 화천으로서 기어구동식 선반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분명 모험이요 무리가 따르는 일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범희봉의 생각은 좀 달랐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는 것이었다.

나는 곧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설계서를 찾아 나섰다. 수소론 끝에 부산에 작업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그를 찾아갔다. 이정은이란 사람으로 기계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다. 함께 일해볼 것을 권유했더니 의외로 선선히 응했다. 기어구동식 선반의 설계도면이 부산의 모 회사에 있는데 그걸 구입한 해가면 쉽게 기계를 만들 수 있겠다며 도면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요구했다.

이정은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기어구동식 선반의 설계도면을 구한 뒤 그와 함께 광주로 왔다. 구해온 설계도면 중에서 내부는 그대로 두고 외형만 약간 변경시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였다.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았다.

설계도면 만을 들여다보면서 생판 모르는 기계를 의욕만 가지고 만들겠다고 덤볐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념' 이야말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도전한지 반년 만에 우리가 만들려는 기어구동식 선반의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1964년 5월의 일이었다.

이때 우리가 만든 기어구동식 선반은 당시 우리나라의 기계공업수준에 비추어 대단한 성과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어구동식 선반은 예상대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종전의 벨트선반과 비교해서 정밀도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력의 손실이 적었기 때문이다. 벨트 선반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었다. 작업효율 면에서 월등하였다. 안전도 또한 이 기어구동식 선반이 훨씬 앞섰다. 첫 해에 20대가 팔렸고 이듬해에는 30대가 팔렸다. 당시 가격은 대당 28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다.

궁동을 떠나 양동으로

기어구동식 선반을 생산하면서부터 화천은 본격적인 공작기계 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다. 주문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공장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시설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돈이었다.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만큼 돈이 없었다. 4천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액수였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은행이란 데를 찾아가 보았다. 지금의 산업은행인 식산은행이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나는 그 사업계획서가

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만드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대중 꾸러가지고 다시 지점장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계획서가 달랑 종이 한 장이냐'며 다시 이런저런 내용을 보충해 오라고 했다. 지점장이 알려준 대로 만들려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보통 까다롭지가 않았다. 그래도 자금을 주겠다는데 안 만들 수도 없었다. 계획서는 어찌어찌 만들긴 했는데, 정작 문제는 대출금을 보장할 만한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가진 담보물이래야 220평 규모의 공동공장이 전부였다. 이것 시가로 1천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나는 날마다 은행으로 찾아가 돈만 빌려주면 어떻게 해서든 지공장을 돌려서 갚겠다고 통사정을 하였다. 지점장이 찾겠다는 연락이 왔다. "오늘 우리 은행 부총재가 광주에 내려와 주무시게 되는데 호텔로 그 분을 찾아가 사정해 보십시오." 공장으로 돌아와 지배인 최봉근에게 당신이 찾아가 잘 부탁드려 보라고 일했다. 나보다 언변 좋은 최봉근이 더 잘 처리할 심상이어서였다. 고려청자 1점을 잘 포장해 보내기로 했다. 아무 소리말고 '사장이 보낸 것이다'라고 전달만 하고 오라며 그의 등을 밀어 보냈다. 1 시간쯤 후에 최봉근이 돌아와서는 '형님, 도대체 그게 뭐요? 아, 부총재란 분이 그것을 보더니만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광주에도 권승관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묻길래 광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런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되지 않을 거라면서 찾아온 용건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①

(구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말하노니, 네가 생겨난 것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버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므로, 오로지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라에 미치지 하면 그것이 곧 충효이며, 네가 극복하여 체득하게 된다면 이가 곧 도(道)이니, 하늘이 무너짐이 있다면 능히 피하여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날아다니는 짐승도 쌍이 있고 헤어진 신발도 짝이 있으니,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지어다.

네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할 뿐 너희끼리 핍짓지 말 것이며, 서로 도울 뿐 너희끼리 죽이지 말지어다. 집안과 국가가 이로서 일어나리라. 너희는 보아라, 소나 말도 가히 그 먹이를 나눠 먹으니, 너희는 서로 양보할 뿐 너희끼리 서로 빼앗지 말 것이며, 서로 같이 경작할 뿐 너희끼리 훔치지 말지어다. 집안과 국가가 이로서 은성하리라. 너희는 보아라, 법은 강하고도 사나우나 신령스럽지 않기에 재앙을 일으키는 법이다.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 사물을 상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항상 존중하며 너희 하늘 본보기를 따라 사물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것에 지나침이 있다면 곧 영원히 신인의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몸과 집안은 이로서 망하리라. 너희가 만약 꽃밭에 불을 질러 꽃이 잘라 모조리 없어지게 되면 신인이 이로써 노여워할 것이다.

檀檢既大誦于有衆,於是神德彰彰,如此數十年,天下復熙熙焉,忘其災矣.或曰,此即檀君八條之教令,可以此分八目,或說是也.後世,麗洛國房登王時,有 始仙人者,自七黠山而來,見王於招賢臺曰:「君以自然爲治,則民自以(以)自然成俗.爲治之道,古有其法,君何不體之.」饋以大牟,辭不受而去.此道,破先聖之訣也.又崔樞雲,穢與神宗曰:「國有玄妙之道,實乃包含三教,接化生.且如入則孝於親,出則忠於君,魯司寇之旨也;處無爲之事,行不言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孤雲,精敏文學,卓越諸人,博通古今,文名飄動,其言可謂善探先聖垂訓之精華矣.此外,散見於載籍者,及道家文集,如《四眼錄》,《三韓拾遺記》等諸書者,不可 記矣.

단검이 무리들에게 크게 유시를 내리니 이에 신인의 덕화가 크게 빛나기를 수십 년, 천하는 다시 화락하여 그 재앙을 잊게 되었다. 혹은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단군팔조(檀君八條)의 교령(敎令)'이라 하



는데, 이것을 여덟 조목으로 나눌 수 있으니 혹은 그 예가 맞을 것이다. 후세에 가락국 방등왕(房登王) 때

임시선인(始仙人)이 있어 칠점산(七黠山)으로부터 내려와 초현대(招賢臺)에서 왕을 뵈고 이르기 [임금께서 자연의 도리로서 다스림의 기본을 삼으면 곧 백성들도 자연의 도로써 풍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다스림의 기본이 되는 도(道)는 예로부터 그 법도가 있는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체득하지 않습니까?라고 하기에, 왕이 크게 희생(犧牲)을 잡아 보내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그가 말하는 도가 바로 앞선 성인의 도를 공구(窮究)할 수 있는 비결이다.

또 최고운(崔孤雲)의 낭림비(鄴鄴碑) 서문에 이르기를 [나라에는 심오한 이치를 지닌 도가 있으니, 실로 삼교(三敎)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못 삶의 무리들을 가까이에서 교화한다. 또한 들어오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나서면 임금에게 충성함과 같은 것은 노나라 공자의 요칙이고, 행함이 없는 뜻이 일을 다스리고 말함이 없는 뜻이 가르침을 퍼는 것은 주나라 노자의 근본 되는 생각이며, 모든 악함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함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천축국 태자의 교화이다]라 하였다.

최고운은 문학에 정통하고 재주가 못 사람들과 보다 뛰어난며 고금의 일에 대해 두루 통하고 글의 명성이 자자한데, 그의 말은 앞선 성인들이 후세에 전하는 교훈의 진국을 잘 가려 뽑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여러 서적에 흩어져 보이는 것과 《사성록(四聖錄)》과 《삼한습기(三韓拾遺記)》 같은 도가(道家) 문집에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적지 못하였다.

從此時, 常出巡, 以孟冬月祭天, 遂爲萬世之遺俗, 此乃東方特有之盛典, 而非外邦之可比也. 太乙一山, 足履崑崙之名而有餘矣. 古之三神山者, 即太白山也. 三神, 又云三聖, 今文化, 九月山有三聖祠, 即敬祀桓因 桓雄 桓檢者也. 今檀君之教, 雖不得健行, 而神化靈訓隨傳於後世. 學國男女, 猶崇信於潛默之中, 即人生生死, 必曰三神所主, (兒小)[小兒]十歲以內, 身命安危及智愚庸俊, 多托於三神解釋. 三神者, 卽創天地造治民物之三神也. 帝釋等語, 雖出於佛家之法華經, 亦天帝之意. 此則, 只因古史譯出於繇流之手也, 不可妄以爲非.

이때부터 항상 순행을 나가면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마침내 만세에 길이 전하는 풍속이 되었다. 이는 동방 특유



의 성대한 제전으로 외국과는 기하 비할 바가 아니다. '태백'이라는 하나의 산은 족히 곤륜(崑崙)의 이름을 누르고도 남음이 있으니, 예전의 삼신산이 곧 태백산이다. '삼신(三神)'을 또는 '삼성(三聖)'이라 하는데, 지금의 문화 구월산에 삼성사(三聖祠)가 있어서 환인과 환웅 및 환검을 공경하여 제사를 지낸다. 지금에 와서 단군의 가르침이 비록 꾸준히 행해지지는 않지만 신령스러운 교화의 가르침은 여전히 후세에 전해지고 있다. 온 나라의 남녀가 여전히 언연중에 받들어 믿고 있는 것으로서,

곧 사람의 삶에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삼신이 주관한다고 말하며, 10살 이전 어린아이의 신변과 목숨의 안위 및 슬기롭고 어리석음과 못나고 뛰어난 등을 모두 삼신제석(三神釋釋)에게 의탁한다. '삼신'은 곧 하늘과 땅을 열고 백성과 사물을 만들어 다스린 삼신을 말하는 것이다. '제석' 등의 말은 비록 불가의 '법화경'에서 나왔지만 역시 하늘 임금의 뜻으로서, 이것은 단지 옛 역사가 승려의 손으로 옮겨진 까닭일 뿐이니 망령되게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음호에 계속)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상 '호국영웅 기장증' 수훈

검교공파종회상 권태강은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하여 5개여 년간 험악한 공훈을 세우고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바 있는 국기유공자이다.

급번 2013년 10월 국방부와 보성고등학교에서는 보성(43회) 재학 중 참전하여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애국심을 천주만대에 기리 전하고 후학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동관에 銘刻(명각)하여 학교 강당입구에 揭示(게시)하였다.

또 조선일보(2013. 10.30(수) A22면)에 귀중한 지면에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크게 보도하여 참전용사들을 영원히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알렸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지난 2013년 11월 21일 권태강 회장이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 기장증을 받아 檢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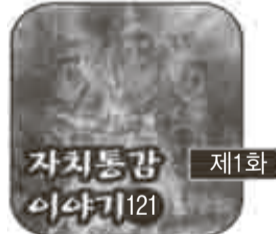


▲ 권태강 회장이 2013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호국영웅 기장증」을 받았다.

派宗會 宗派史에 기록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권오복 편집위원>

한 사람의 주장이 열사람보다 옳은 경우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북조를 통일한 일이 두 번 있다. 하나는 진진(前秦)의 부견(苻堅)인데, 북조를 다 통일하고 나서 남쪽에 있는 동진(東晉)까지 멸망시켜서 중국 전체를 통일하려고 하다가 비수의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실패하여 오히려 북조가 4분5열되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북위(北魏)였다. 북위는 북조를 통일한 다음에 비교적 오래 갔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후에 수·당시대를 열게 한 초석을 쌓았다.

이러한 북위의 북조 통일을 옆에서 도운 사람으로 최호(崔浩)가 있다. 그는 한족(漢族) 출신이지만 탁발씨의 북위에 벼살하면서 도무제, 명원제, 태무제 등 세 황제를 보필하였다. 그리고 그의 건의가 대체적으로 성공하여 스스로 한나라 때에 유방을 도왔던 장량(張良)에다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위가 북조를 통일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때에 최호가 내세우는 방향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였던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북위의 태무제가 유연(柔然)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많은 신하들뿐만 아니라 보(保)태후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이 해가 기사(己巳)년에서 음(陰)

에 해당한다는 것과 하늘의 별자리가 북쪽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불쾌해진 태무제는 이들과 최호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게 하였다. 그러자 최호는 음은 황제가 형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유연이 북위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황제가 형벌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로 이들을 제압했다. 술수를 가지고 국가의 계획을 좌우하는 것이 맞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북쪽으로 군대를 동원하게 되면 남쪽에 있는 송(宋)이 북쪽으로 자기를 북위의 북위를 치러 올라 올 수 있다는 말로 또 반대 했다. 그러나 최호는 역시 남쪽에 새로 바뀐 송나라에서는 그렇게 제빨리 북쪽으로 올라 올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다. 물론 북쪽으로 유연을 정벌하는 일을 성공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태무제는 최호를 아주 가까이 하였다. 또 필요에 따라서 최호의 집을 방문하여 국가적인 일을 자문 받는 일을 하였다. 때로는 태무제가 최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어떤 때는 예고 없이 방문하는 바람에 다급하여 최호는 의관을 갖추 수 도 없었고, 거친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태무제는

최호가 대접하는 거친 음식을 반드시 첫가락으로 먹었다. 그런 정도로 최호를 신임하였다.

또 포로로 잡혀 온 쿠차지역의 우두머리에게 최호를 소개하면서“너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몸이 약하고 가냘프며 유약하여 활시위를 당기거나 창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바는 무가나 갑옷보다 더 지나치고 있다. 짐은 비록 정벌의 의지는 있었으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앞뒤로 공을 세웠던 것은 모두 이 사람이 가르쳐준 바이다.”라고 했다.

또 북위의 상서에게도 “무릇 국가와 군사에 관한 큰 계획에 너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마땅히 최호에게 자문을 구한 연후에 시행하도록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 동진이 송으로 바뀐에 따라서 사마씨들이 북위로 많이 왔는데, 이들은 북위의 힘을 빌려 자 그들의 원수인 송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도 최호는 이에 반대했다. 이럴 때만 최호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달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호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북위는 북조를 통일할 수 있었다.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다. 모든 문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이 아는 한 사람의 선성 말보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학생 말이 옳다고 하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선생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열사람이 주장하더라도 틀릴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이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경우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음호에 계속>

對馬島는 大韓民國 영토 즉각 日本은 返還하라! ①

■ 權貞澤 (成均館典儀兼典禮士)



위 지도는 국보248호(조선방역지도 朝鮮方域之圖).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이고 교과서에 제작 선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를 영토 교육의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 중국) 항의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제까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에 명확하게 쓰지 못했던 것 자체가(일 정부로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국민은 한복소리로 일본의 허망한 소리에 소리높이 외쳐야 한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 전기 국가제작지도

로는 유일하다. '백두는 머리, 태백은 척추,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를 양팔로 삼는다는 기록대로 당시 국토 관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도. 대마도는 조선반도와 같은 노란색, 일본은 녹색이다. 이 지도는 미국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면서 영토를 확인 할 때 일본이 내놓은 것으로,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함께 국제공인한 지도이며 그 후 일본이 각국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국가공식지도로 사용했다.

1870년대 일본은 대마도 노란색을 일본과 같은 녹색으로 변조하여 각국에 배포, 노란색 대마도 지도와 바꿔치기 했다.

1948년 8월18일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사흘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적인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발표했지요. 근대에 와서 최초로 “대마도반환”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 그 이후로는 오늘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국민)들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요즘 일본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중국 인민들 데모하는 거 못 봤어요.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걸……. 우린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그 땅도 역사화적이나 지리학적이나 거리와 위치를 봐도 분명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살치는 거지요.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해

야 한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섬긴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일어나 이를 격퇴했고 지금도 도처에 그 잔적비가 남아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경계선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조선의 땅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때 국회에서도 '대마도반환' 결의안을 만들었고, 이승만은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법적조치를 취하면서 수시로 '대마도 내우라'고 요구한 것이 6.25전쟁 발발 전까지 무려 60여 차례나 이어졌어요.

당황한 일본은 '온나일본부살'을 내세워 회피하다가 북한의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자 패배를 불렀지요. “김일성이 일본을 살려준다.”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는군요.

이승만의 '대마도 요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전쟁특수로 경제대국 발판까지 거머쥐게 된 일본. 김일성과 소련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소련 공산당 앉았이 김일성이야말로 '친일파 왕조'라 할 만하지요.

(다음호에 계속)